

#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 행복한 주민들

최미선

순천시 도시재생과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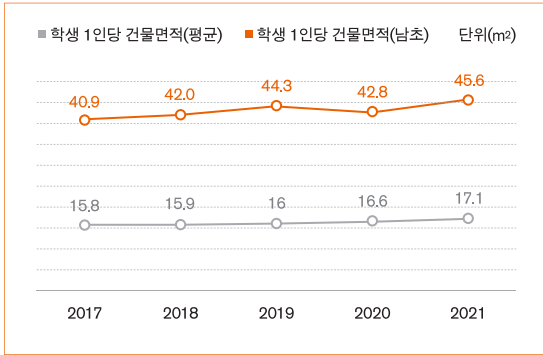
##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쇠퇴

순천남초등학교는 1906년 4월 1일 사립승명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11년 11월 1일 순천공립보통학교 인가를 받았다. 이후 1950년 순천남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1996년 지금의 순천남초등학교가 되었다. 2022년 현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순천시 최초로 공립보통학교 인가를 받아 지역민들의 애정이 남다르다.

순천남초등학교가 위치한 저전동은 순천고·순천여고·순천여중이 밀집해 있어 교육도시 순천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과거 저전동은 여수·광양·별교·보성·구례 등 전남 동부권 지역 인재들의 고등학교 입학 을 위한 유학 문화가 형성되어 하숙·자취방 등이 많았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이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방인구의 대도시 이주와 순천 관내 신도심(덕연동, 왕조1·2동 등) 개발로 인하여 정주민구 유출이 지속되었고, 여기에 초고령화 현상까지 더해졌다. 2022년 65세 이상인 저전동 인구는 913명으로 전체 저전동 인구 2,688명 중 약 34%를 차지하는데, 이는 UN에서 정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기준인 20%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저전동의 학생 수 감소는 2003년 순천여자중학교 이전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순천남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1980년대 약 2,500명에서 2022년 232명으로 약 1/10 수준으로 줄었고,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2017년 40.9㎡에 이르렀다. 이는 전국 초등학교 학생 1인당 평균 건물면적보다 2.5~2.6배 넓은 것으로, 그만큼 학교 내 유휴공간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100년 역사의 순천남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몰렸다.

학생 수 감소는 저전동 골목상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학 문화와 함께 성행하던 하숙·자취방을 비롯하여 분식집, 독서실, 학원, 교복점, 미용실, 문구



학생 1인당 건물면적(초·중등 교육시설 현황)

출처: e-나라 지표 국정모니터링지표(연도별 순천남초 학생 수(전체),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순천남초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대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38](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38)(검색일: 2022.6.3.)

사, 서점 등 학생들의 생활이나 교육과 관련한 경제요인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떡볶이집이 12개였어!” “내가 이 자리에서 문구점을 오래 하었는데 이제 접으려고 해” 등과 같은 주민들의 이야기에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오래 방치된 빈 상가는 동네의 골칫덩이가 되었고, 학생들로 바글바글하던 거리는 생기를 잃었다.

### 학교재생 특화사업 추진

순천남초등학교 내부에서도 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 및 학교 공간의 다양성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던 시기와 맞물려 2017년 12월 저전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에 선정되었다. 학교 부지 전체가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것은 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전동(일반근린형) 사업구상도

전동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저전동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 경관 정비’와 ‘커뮤니티 재생’이었다. 이 때문에 2018년 8월 승인받은 활성화 계획에서 전체 30여 개 단위사업 중 순천남초등학교와 관련한 사업은 생태놀이터정원을 만들고, 학교 주변 안심안전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 두 개뿐이었다.

### 소통과 공감 창구, 학교재생 T/F팀 운영

순천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시설물 설치와 지속관리 및 안전문제 등에서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생태놀이터정원 만들기’와 ‘안심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 모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19년 1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 저전동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되면서 순천시와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그리고 학교가 함께 협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쇠퇴하는 지역사회를 되살려 학생 수를 늘리고, 지역사회의 씨앗이 될 미래 세대를 양육한다’는 비전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빛나는 아이들을 기르자’는 학교의 교훈을 떠올리며, 갈등 완화를 위한 소통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비전을 공유하며 사업을 진행하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로 2019년 3월 학교재생 T/F팀(총 22명: 순천남초등학교, 순천교육지원청, 학부모, 남초 동문회, 주민협의체, 순천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주체들이 월 1회 정기 또는 수시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와 학교, 학생 모두가 행복한 지역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하였다. 학교는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하였고, 순천시는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 5개월 만인 2019년 8월 13일,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간 순천남초등학교 재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도시재생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학교 재생’으로 학생과 지역사회 거점공간이 조성되는 단초가 되었다. 협약 체결 이후 순천남초등학교는 학교 입구에 위치한 남관(3층 전체, 3,249m<sup>2</sup>)을 향후 20년간 순천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를 냈다. 학교 측이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로 큰 결정을 한 것이다.

### 담장 허물기에서 담장 개선으로

안심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에 포함된 ‘담장 허물기’ 사업은 활성화 계획 작성 당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안되었다. 고령의 보도이용자가 많은 주거단지에서 자리한 넓은 학교 부지는 버스정류장에서 주거밀집지역까지 이동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었다. 이에 담장을 허물고, 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동선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였다. 순천시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순천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순천남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진단 보고서를 받아 범죄 발생률과 야간 조도가 낮은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결과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담장 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담장을 아예 없애는 대신 투과형 블록을 낮게 설치하여 개방감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담장은 블록담으로 교체하고, 학교 정구장 주변 3m 높이의 적벽돌 담장은 정구 연습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명 방음벽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CCTV 설치 및 셉테드

(CPTED)\* 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경관 개선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안심안전 통학로 조성 추가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앞까지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한편 한전지중화사업과 함께 빈 상가를 매입해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차량코너각을 확보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였다.

### 어린이 마을디자인단 ‘저전히어로즈’의 참여와 활동

학교재생 특화사업 T/F팀 운영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는 일은 ‘어린이 마을디자인단, 저전히어로즈(이하 저전히어로즈)’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저전히어로즈는 순천남초등학교 학생회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1기를 진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온라인수업 전환으로 보류하였고, 2021년에 2기를 진행하였다.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된 저전히어로즈 1기는 순천남초등학교·경찰서·YMCA·지역방송사·조경전문가 등 민·관·산·학이 협력하였는데, 생태놀이터정원 디자인과 안심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안전지도 만들기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생태놀이터정원 디자인은 4회 차에 걸쳐 놀이터 만족도 조사, 선호 놀이행태 파악, 놀이터 디자인, 놀이터 모형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자인 워크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놀이요소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에 참여한 저전히어로즈의 의견이 실제 놀이터로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주인의식을 길러낼 수 있었다.

안심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안전지도 만들기 과정에서는 저전히어로즈 학생들이 등·하교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면을 액션캠으로 직접 촬영

\*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



놀이터 모형 만들기



놀이터 디자인 워크숍



안심안전지도

#### 어린이 마을디자인단 '저전하이로즈' 프로그램

하여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시선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워크숍 결과는 비주얼 퍼실리테이팅을 통해 한 장의 '안심안전지도'로 제작되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견일지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15걸음마다 가로등 설치'는 실제 가로등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소요예산 대비 효과가 적어 실현 가능성이 낮았지만, 태양광 바닥등을 어린이 걸음으로 약 15걸음에 해당하는 6~7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2021년에 진행된 저전하이로즈 2기는 담장 개선 사업 및 학교 텃밭 정원 조성을 주제로 진행되어, 담장 개선을 위한 디자인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였다. 디자인 결과물을 실현하여 실제 학교 주변 경관 개선에 참여한 일은 학생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인 동시에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 세대공감, 비타민센터

학교재생 T/F팀 회의로 확인한 학교의 가장 큰 문

젯거리는 유희공간의 관리였다. 순천남초등학교는 2,500명을 수용하던 규모의 학교 공간 대부분이 학생 수 감소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지역에서는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이 필요하였다. 학교재생 T/F팀에서 학교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마을과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당초 사업지구 내 저층주거지에 3층짜리 비타민센터(복합문화공간)를 건립하려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순천남초등학교 남관동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순천교육지원청에서는 남관에 있던 급식실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가까운 강당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 9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렇듯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남초등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현재 사람과 공간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순천시는 약 31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설계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건축사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따로 조직하여 공간디자인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지역 건축사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공간 언어로 번역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 발전된 공간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실시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



순천남초등학교 남관



現 비타민센터 모습



생태놀이터

**순천남초등학교 남관동 리모델링 프로젝트**

는 이용자의 공간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끼쳤다. 공간디자인 워크숍에서는 공간 운영자 모색도 함께 이루어졌다. 1층은 주민 공간, 2층은 단체 입주 공간, 3층은 청소년 공간이라는 층별 구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함께할 관계기관을 섭외하였다. 그 결과 시설의 종합 관리는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 진행하여 청소 등의 관리를 수행할 주민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워크숍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모색하였다. 그중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방안으로 학교 측에서 운동장의 일부를 내어주어 8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것은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은 일이다. 지자체도 부지매입 등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저층 주거지에서 추진하기 힘든 대규모 시설을 한곳에 집중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 행복한 주민들을 꿈꾸며**

폐교가 아니라 운영 중인 학교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특히 학

생들의 안전문제와 관련되면 학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담장 허물기부터 가로막힌 사업을 담장 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소통 창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어쩌면 저전동의 학교재생 특화사업은 느리지만 빠르게 길을 걸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일은 학교재생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어린이, 청소년, 주민 모두가 오래도록 잘 쓰는 것이다. 생태놀이터정원은 학교 운영 시간에는 학생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 방과 후와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소풍을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또 세대공감 비타민센터는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동아리·전시·교육·놀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학생들은 저전히어로즈 등 마을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시민활동과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유휴공간의 지역사회 활용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례로 남으며 아이들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저전동을 꿈꾸 본다.